

# 남언기 <고반원가>의 문학사적 검토\*

김신중\*

## <차 례>

1. 머리말
2. 남언기와 <고반원가>
3. 16세기 가사문학의 지형
4. 누정은일가사와 <고반원가>
5. 맺음말

## <국문초록>

남언기의 <고반원가>는 최근에 발굴된 누정은일가사이다. 16세기 후반 호남의 무등산권에 속한, 옛 동복현 사평촌의 고반원을 배경으로 창작되었다. 이 <고반원가>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가사문학사에서 어떤 위치에 놓이는지를 검토한 것이 바로 이 글이다.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반원가>가 최근에야 세상에 알려진 작품임을 고려하여, 먼저 작자와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간략히 조감하였다. 작자 남언기는 한양 출신으로, 성장과 수학 과정에서 호남과 밀접한 인연을 맺었다. 그리고 30대 중반 이후 처가가 있는 사평촌에 정착하여 고반원을 조성하고, <고반원가>를 창작하였다. <고반원가>는 고반원 주인의 한가로운 생활과 고반원 경치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누정은일가사이다.

따라서 이 글은 무엇보다 누정은일가사로서, <고반원가>의 성격에 주목하였다. 특히 16세기 호남의 무등산권이라는 시대와 지역적 배경에 유의하여,

---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1-A00006)

\*\* 전남대학교

같은 배경을 가진 송순의 <면앙정가>와 정철의 <성산별곡>과의 관계를 주로 해명하였다. 작자와 작중 은일자의 관계, 작품의 내용 구성, 작자의 성격 및 현실인식태도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그 과정에서 <고반원가>가 특히 <면앙정가>의 맥을 이으면서, 나름대로 독자성도 갖추었음을 밝혔다.

이어 17세기 이후의 누정은일가사와 <고반원가>의 관계를 살폈다. 17세기의 누정은일가사 역시 16세기에 수립된 전통 위에서 창작되었다. 하지만 17세기를 지나면서 누정은일가사는 그 성격이 은일보다는 향촌의 한거노래로 변모되었고, 18세기에는 작품 창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16세기의 불안한 정치현실에서 배태된 은일이라는 시대감성이 더 이상 공감을 얻지 못한 결과였다. 이런 흐름 속에서 <고반원가>는 17세기적 변화의 단초를 미리 보여준 작품이기도 하였다.

핵심어 : 남언기, <고반원가>, 누정은일가사, <면앙정가>, <성산별곡>, 16세기, 시대감성

## 1. 머리말

남언기(南彦紀; 1534~1578이후)의 가사 <고반원가(考槃園歌)>는 최근에야 학계에 알려진 작품이다. 필자가 지난 3월 『한국언어문학』 제92집에 이 작품을 소개하는 논문을 발표함으로써,<sup>1)</sup> 비로소 그 존재가 연구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작품이 창작되고 나서 430여년이 지난 후의 일이었다. 필자가 앞의 논문에서 다룬 주요 내용은 당시까지 학술적 조명을

1) 김신중, 「남언기의 고반원과 <고반원가>」, 『한국언어문학』 제92집, 한국언어학회, 2015. 3. 31.

(이후 다시 『오늘의 가사문학』 제5호(고요아침, 2015. 6. 1)의 ‘누정기행’에 「신자료 소개, 남언기의 가사 <고반원가>」라는 제목으로 이 작품을 영인 소개하였다.)

받지 못한 작자 남언기의 삶, 그가 조영하였던 원림 고반원(考槃園)의 경관과 내력, 그리고 외적 형태와 내용 등을 통해 본 <고반원가>의 기본적인 문학적 면모였다.

그런데 이 <고반원가>는 무엇보다도 16세기 후반에 호남 무등산권의 고반원을 배경으로 창작된, 조선전기 은일가사의 전형을 보여준 누정가사라는 점에 무게가 실리는 작품이다. 특히 송순의 <면양정가>와 정철의 <성산별곡>과의 관계가 주목된다. 모두 16세기에 무등산권의 누정이나 원림을 무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창작 시기와 배경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어떤 방향으로든 세 작품 사이에 특수한 지역적 연고에 따른 영향의 수수가 이루어졌으리라는 점도 쉽게 유추된다.

때문에 이 글은 <고반원가>가 나머지 두 작품과의 관계, 그리고 17세기 이후 누정은일가사와의 관계 속에서 문학사적으로 어떤 맥락에 놓이는지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를 위해 먼저 필자의 앞 논문에 기대어, 남언기와 <고반원가>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개괄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 2. 남언기와 <고반원가>

남언기는 의령남씨 남치욱의 이들로, 중종 29년(1534) 한양에서 태어났다. 학문의 길에 들어서서는 이항과 김인후 및 이황을 따라 배웠으며, 창평의 정철과 고창의 변성온, 장성의 기효간과 깊이 사귀었다. 이런 사승 및 교우 관계를 통해 그에게서 호남 인물들과의 교섭이 두드러짐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렇듯 그가 호남 인물들과 밀접한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아버지 남치욱이 호남의 지방관으로 재임했던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치욱은 남언기가 12세이던 인종 1년(1545)부터 약 4년

간 보성군수와 장흥부사를 지냈다. 당시 10대였던 남언기도 아버지를 따라 임지에 내려와, 이때부터 김인후의 문하에 나아갔을 것이다. 이 무렵 김인후는 인종의 사후 벼슬을 버리고 장성의 향제와 순창의 초당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또 정철은 명종 6년(1551)부터 명종 17년(1562)까지 창평에 와 머물며 김인후의 문하에 출입하였다.

수학기를 지나 성인이 된 남언기가 한양을 떠나 호남에 정착한 것은 30대 후반 이후 선조 때의 일이다. 남언기는 35세 때인 선조 1년(1568) 생원시에 급제하였다. 이어 이조판서 이탁의 천거를 받아 동몽교관과 병고별좌를 제수받았으나 끝내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는 호남의 서석산 아래에 있는 동복현 사평촌에 고반원을 조성하고, 이곳에서 여생을 보냈다. 그가 특히 사평촌을 찾아 복축한 것은 장인 설홍윤이 이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남언기가 세상을 떠난 것이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그의 행적은 40대 중반까지 추적된다. 남언기는 45세 때인 선조 11년(1578) 모친상을 당하였고, 이후 모부인과 관련된 <선비가전(先妣家傳)>과 <선고비합장비(先考妣合葬碑)>라는 글을 남겼다. 때문에 그가 사평촌에 정착하여 고반원을 조성한 시기는 그의 나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에 이르는 1570년대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sup>2)</sup> 또 <고반원가>의 창작은 당연히 고반원 조성 이후에 이루어졌을 것인바, 작품의 내용으로 보아 그의 만년인 40대 중반 또는 그 이후(특히 1578년 이후)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sup>3)</sup> 그런데 고반원은 13개소나 되는 누정을 포함하여 21종 49개소 이상의 경관을 갖추었다고 기록된<sup>4)</sup> 꽤 규모가 크고 아름다운 원림이었지만, 조성된 지 채 30년을 넘기지 못하고 임진왜란 때 전소되고 말았다.

<고반원가>는 남언기의 행적을 모은 『고반선생유편(考槃先生遺編)』<sup>5)</sup>

2) 김신중, 「남언기의 고반원과 <고반원가>」, 87쪽.

3) 김신중, 「남언기의 고반원과 <고반원가>」, 94쪽.

4) 남언기의 <考槃園命名記>(『考槃先生遺編』, 雜著) 참고.

잡저에 수록되어 있다. 공간적 배경은 옛 동북현 사평촌의 고반원, 지금의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사평리 임대정원림의 옛터이다. 길이는 모두 57행인데, 4음보 1행의 율격이 정연하지는 않다. 2음보 1구를 기준으로 헤아리면 모두 101구이다. 하지만 작품의 뒤쪽 일부가 결락된 채 수록되어 있어 원래의 모습은 지금 알 수가 없다. 내용은 고반원 주인의 한가로운 은일생활과 고반원 산수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요약된다. 이를 다시 단락으로 나누면 전체 7단 구성으로 파악되는데, 제6단의 일부와 제7단이 결락부에 해당된다.

<고반원가> 각 단락의 주요 내용과 지배적 질서 및 이에 따른 기본 구성은 다음과 같다.<sup>6)</sup>

단락	주요 내용	지배적 질서	구성과 내용
제1단	고원 귀원	시·공간적 질서	서사 ; 고반원으로서의 귀원
제2단	하루 일과	시간적 질서	본사 I; 고반원의 일상과 사시
제3단	사시 경물	시간적 질서	
제4단	주변 산세	공간적 질서	본사 II; 고반원의 산수 가경
제5단	수변 풍경	공간적 질서	
제6단	산곡 풍치	공간적 질서	
제7단	[마무리]	[결락]	[결사 ; 마무리]

전체 7단 가운데 제1단과 제7단이 서사와 결사에 해당된다. 서사의 내용은 늙고 병든 화자(주인)가 한양을 떠나 고반원 고원으로 돌아와 느끼는 반가움이다. 이어 제2단부터 제6단까지의 본사에서 고반원의 하루 일

5) 『고반선생유편』은 단권 단책의 목판본으로, 숙종 때 남언기의 從孫 南鶴鳴이 남언기의 유문과 유사 등을 모아 편찬하였다. 내용은 序와 跋 외에 詩, 雜著, 遺事, 附錄으로 이루어져 있다.

6) 김신중, 「남언기의 고반원과 <고반원가>」, 99쪽.

과, 사시 경물, 주변 산세, 수변 풍경, 산곡 풍치를 차례로 노래하였다. 그 가운데 제2단과 제3단에는 하루와 사시의 시간적 흐름이, 제4·5·6단에는 원림 원근의 솟은 산과 흐르는 물과 좁은 계곡의 공간적 형상이 지배적 질서로 실현되어 있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에 따른 이 두 질서를 기준으로 하여, 본사는 다시 I 과 II로 구분된다. 여기서 <고반원가>가 고반원을 관류하는 시간과 공간을 중심축으로 삼아, 주인의 한가로운 일상과 자연의 아름다운 경관을 그린, 누정은일가사임을 알 수 있다.

### 3. 16세기 가사문학의 지형

고려 말에 비롯된 가사의 창작은 조선 초에 들어 한동안 소강상태에 놓인다. 성종 때에 나온 정극인의 <상춘곡>은 이런 소강상태를 벗어나 조선의 사대부문학으로 가사의 성공적인 안착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15세기 후반의 이 <상춘곡>과 이인형의 <매창월가>에 이어, 16세기의 시작과 더불어 가사는 전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본격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사대부층이 있었다. 그래서 보통 <상춘곡>과 <매창월가>를 지나서 임진왜란에 이르는 이 16세기를 가사문학의 발전기라 일컫는다. 문학사에서 흔히 전기가사라는 이름으로 분류되는 작품들이 거의가 16세기의 소산이다.

현재까지 조사 보고된 가사 작품은 『역대가사문학전집』에 수록된 것만 해도 동종이본 포함 2,500편에 가깝다.<sup>7)</sup> 물론 이 숫자는 유명씨와 무명씨 작품을 모두 합한 것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유명씨 작품이 어느 정도인지는 짐작하기가 쉽지 않다. 아마 절반에도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또 이 2,500편을 가사문학사의 각 시기별로 나누어 본다면 16세기의 소

7) 임기중 편 『역대가사문학전집』(전50권)에 동종이본 포함 2,469편이 수록되어 있다.

산이 어느 정도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특히 무명씨 작품의 경우 그 성립 시기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다만 작자가 있는 유명씨 작품만을 고려한다면, 16세기 초부터 임진왜란 전까지의 작품으로 분류되는 것은 고작 24편에 불과하다.<sup>8)</sup> 다음이 그 작자와 제목이다.

- 조 위(1454~1503) : 만분가(유배)
- 이 서(1484~ ? ) : 낙지가(은일)
- 송 순(1493~1582) : 면양정가(은일)
- 진복창( ? ~1563) : 역대가(역사)
- 이 황(1501~1570) : 퇴계가(은일), 금보가(교훈),  
도덕가(교훈), 상저가(교훈), 효우가(교훈)
- 조 식(1501~1572) : 권선지로가(교훈)
- 양사준(1555년 창작) : 남정가(전쟁)
- 양사언(1517~1584) : 미인별곡(연정)
- 허 강(1520~1592) : 서호별곡(유락)
- 백광홍(1522~1556) : 관서별곡(기행)
- 정 철(1536~1593) : 성산별곡(은일), 관동별곡(기행),  
사미인곡(연군), 속미인곡(연군)
- 이 이(1536~1584) : 자경별곡(교훈), 낙빈가(은일),  
낙지가(은일), 처사가(은일)
- 허초희(1563~1589) : 규원가(연정), 봉선화가(풍속)

16세기 가사로 지목된 이 작품들의 면면을 보면, 그 수는 24편에 불과하지만 내용이 그리 단순하지는 않다. 유배(1), 은일(7), 연군(2), 역사(1), 전쟁(1), 기행(2), 교훈(6), 유락(1), 연정(2), 풍속(1)으로 다양하다. 발생 이후 15세기까지의 작품이 포교(3), 역사(1), 은일(2)에 그쳤던 데에 비해 크게 발전된 모습이다. 괄호 속에 표시한 작품 수로 보면, 은일가사와 교

8) 류연석은 『한국가사문학사』(국학자료원, 1994, 77쪽 및 각 시기별 가사작품 총람 표 참고)에서 유명씨 작품 852편을 발생기(고려 말~성종조) 7편, 발전기(연산조~임진왜란 전) 24편, 흥성기(임진왜란 이후~경종조) 63편, 전환기(영조조~갑오경장 전) 186편, 쇠퇴기(갑오경장 이후~현재) 572편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발전기의 작품이 모두 16세기 초부터 임진왜란 전까지의 소산이다.

훈가사가 가장 많다. 하지만 실제로 그 작품 수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은일과 교훈의 내용을 가진 이황과 조식과 이이의 작품에서, <자경별곡>을 제외한 나머지는 작자의 진위 여부에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주로 도학 관련 내용을 가진 후인의 작품들이 도학자로서 권위를 가진 이들의 이름을 빌어 전승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16세기의 시작과 더불어 나온 첫 작품은 조위의 <만분가>이다. 조위는 무오사화에 연루되어 의주를 거쳐 순천에 유배되었다가, 배소에서 이 작품을 지었다. 그런데 16세기의 첫 작품이 유배가사라는 사실은 문학사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조선전기 사대부사회는 성종 때의 사림과 진출 이후 연산군 때부터 비롯된 잦은 사화로 인해 다시 많은 변화를 겪었다. 특히 억울하게 화를 입은 선비들이 증가하고, 현실을 피해 은일을 표방하는 경향이 호응을 얻으면서, 16세기의 가사문학에도 이런 시대적 변화가 유입되었다. 그 결과 새로이 유배와 연군가사가 등장하였고, <상춘곡>의 흐름을 잇는 은일가사가 이 시기를 대표하는 작품 유형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만분가>는 바로 이런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이었다. 16세기 말로 가면서는 연정과 풍속을 노래한 여성가사의 등장도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거명된 이 시기의 은일가사 작품은 이서의 <낙지가>, 송순의 <면양정가>, 이황의 <퇴계가>, 정철의 <성산별곡>, 이이의 <낙빈가>·<낙지가>·<처사가>이다. 이 가운데 특히 이서의 <낙지가>, 송순의 <면양정가>, 정철의 <성산별곡>이 주목을 받았다. 이황과 이이의 작품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작자 문제에 의문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은 이황과 이이가 지었다고 알려진 작품들이 작자와의 연결점을 찾기 어려운, 막연히 일반화된 공간과 시간을 배경으로, 전형적인 은일생활을 기술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이에 비해 <낙지가>·<면양정가>·<성산별곡>은 실제적인 공간과 시간을 배경으로, 작자 개인의 특수한 체험을 형상화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면양정가>와 <성산별곡>이 그렇다. 두 작품 모두 제목에 드러나듯이 구체적인 지명을 앞



세운 누정가사라는 데에 공통점이 있다.

때문에 구체적인 지역 연고를 가진 <면양정가>와 <성산별곡>에 대한 연구는 당연히 그 배경이 된 호남의 지역문학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그 선편을 잡은 것이 호남가단에 대한 연구로,<sup>9)</sup> 이때부터 ‘호남가단’이란 개념이 일반화되었다. 초기 호남가단 연구는 이른바 ‘면양정가단’과 ‘성산가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런 가단의 이름조차도 <면양정가>와 <성산별곡>을 의식하여 붙여진 것이었다. 이후 호남가단 연구는 다시 유수의 누정을 중심으로 한 호남시단 연구로 확대되었는바,<sup>10)</sup> 이 역시 <면양정가>와 <성산별곡>이 누정가사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듯 16세기의 가사문학 특히 은일가사의 발전은 호남의 누정문화와 분리하여 논의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런 문학사적 중요성에 비해, 거론할 수 있는 누정가사 작품이 고작 두 편에 불과하다는 영성함을 면할 수 없었다. 그러기에 새로 발견된 <고반원가>의 존재는 평범한 작품 1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면 이제 장을 바꾸어 누정은일가사, 특히 <면양정가> 및 <성산별곡>과의 관계 속에서 <고반원가>의 성격을 살펴보기로 하자.

#### 4. 누정은일가사와 <고반원가>

여러 작품을 한 자리에서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작품들의 선후 관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면양정가>와 <성산별곡> 역시 <고반원가>처럼 정확한 창작 시기를 알 수 없는 작품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추정에 의해 이 세 작품의 선후 관계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면양정가>의 창작 시기에 대한 여러 견해는 면양정의 창건이 있었

9) 정익섭, 『호남가단연구』, 진명문화사, 1975.

\_\_\_\_\_, 『개고 호남가단연구』, (주)민문고, 1989.

10) 박준규, 『호남시단의 연구』,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8.

던 작자의 40대설, 중수가 이루어졌던 60대설, 그리고 만년 치사한 77세 이후설로 요약된다. 여기서는 그 중 최근에 관련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새로 발표된 60대설의 한 입장<sup>11)</sup>을 취하여, 송순이 63세(1555)부터 66세(1558) 사이에 지었다고 보기로 한다. 이때 송순은 선산부사를 마치고 면양정에 돌아와 있었다. 60세(1552) 때의 면양정 중수에 앞서, 58세(1550)부터 이듬해까지는 유배생활을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도 면양정 중수와 은일의 한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성산별곡>의 창작 시기에 대한 견해 역시 식영정이 창건(1560)된 작자의 25세설부터 30세 전후설, 40대설, 50대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런데 부정적 현실인식을 기저로 한 작품의 내용으로 보아, 빨라야 작자의 40세(1575) 이후에 지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철이 당쟁의 와중에서 일시 창평에 물러나 있으면서 지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철은 관직에 나아간 이후 40세부터 42세까지, 44세, 46세, 50세부터 54세까지의 네 차례에 걸쳐 창평에 내려와 생활한 바 있다.<sup>12)</sup> 이 중 네 번째 낙향 기간에 지었다는 주장에 가장 무게가 실린다.<sup>13)</sup>

여기서 <고반원가>가 남언기의 40대(1573~1582) 중반 또는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 셋 중 <면양정가>의 창작이 가장 빠르다. 하지만 <성산별곡>과 <고반원가>의 선후 관계는 쉽게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두 작품의 선후 관계는 접어두고, 두 작품 모두 <면양정가>의 맥을 이어 창작되었다는 전제 아래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다. 이어서 <면양정

11) 이상원, 「송순의 면양정 구축과 <면양정가> 창작 시기」, 『한국고시가문화연구』 제35집, 한국고시가문화학회, 2015, 273쪽.

12) 박영주, 「간추린 송강 연보」, 『고집불통 송강평전』, 고요아침, 2003, 348~350쪽 참고.

13) 정철은 네 번째 낙향 시 가장 오랫동안 창평에 머물렀다. 송강정을 세우고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을 지은 것도 이때의 일이었다. 그가 네 번째 낙향을 마치고 송강정을 떠나며 쓴 한시에 <숙송강정사(宿松江亭舍)>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는 자신의 지나간 30년을 돌아보며 “주인도 아니었고 손도 아니었네(非主亦非賓)”라고 술회하였다. <성산별곡> 말미의 “손인동 主人인동 다니저 버려세라”와 흡사하다. 이런 의취도 그가 비슷한 시기에 두 작품을 지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한 근거가 된다.

가>와 <성산별곡>의 내용을 간략히 살핀다.

<면앙정가>의 작중 화자는 작자이다. 작품은 시종 단일화자의 진술로 진행된다. 서사는 무등산 자락 제월봉 아래 면앙정을 창건한 기사로 시작된다. 본사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 하나는 면앙정 앞을 흐르는 물과 멀리 주위에 솟은 산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철을 따라 바뀌는 사시의 경물이다. 결사에서는 아무런 근심 없이 즐기는 자신의 물외한정과 취흥자락의 풍류를 과시하였다. 요약하면 서사(창건), 본사 I(수세와 산세)·본사 II(사시의 경물), 결사(풍류)의 구성이다.

이에 비해 <성산별곡>은 제3의 서술자가 개입된, 복수화자의 문답체로 구성되어 있다.<sup>14)</sup> 제1화자는 지나는 ‘손’이고, 제2화자는 서하당 식영정의 ‘주인’이다. 작자는 손의 입장에서, 주인의 산중 은일을 찬미하였다. 서사에서 손이 주인을 호명하며 산중 은거를 환기시켰고, 본사에서 계속하여 사시의 자연과 함께하는 주인의 생활 모습을 그렸다. 그리고 결사에서 주인의 입을 빌어 세상과의 불화라는 은거의 동기를 말하였다. 서사(호명), 본사(사시의 경물과 생활), 결사(답변)로 이어지는 구성이다.

이렇게 보면 <면앙정가>와 <성산별곡>은 둘 다 누정을 배경으로 한 은일가사이면서도,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

첫째는 작자와 작중 은일자의 관계이다. <면앙정가>는 작자가 곧 은일자로서, 작자가 자신의 입을 통해 스스로의 은일생활을 과시하였다. <성산별곡>에서는 작자와 은일자가 별도의 인물로 설정되어 있으며,<sup>15)</sup> 작자에 의해 은일자에 대한 찬미와 동경이 이루어졌다.

둘째는 작품 특히 본사의 내용 구성이다. <면앙정가>는 본사에서 공간

14) 김신중, 「문답체 문학의 성격과 <성산별곡>」, 『고시가연구』 제8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1, 64~72쪽 참고.

15) <성산별곡>에 설정된 은일자가 실제의 어떤 인물을 모델로 하였느냐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작자 자신인가, 아니면 다른 인물(김성원 또는 임억령)인가가 그 요지이다(최한선, 「성산별곡과 송강 정철」, 『고시가연구』 제5집, 한국고시가문학회, 1998, 680~704쪽 참고). 하지만 여기서는 이런 논의와는 무관하게 작품 문면에 설정된 관계만을 보기로 한다.

과 시간을 병치시키는 구성을 하였고, <성산별곡>은 그 중 시간적 측면만을 취해 본사 전체를 사시의 틀로 구성하였다. 그런데 이는 앞에서 말한, 작자와 은일자의 동일인물 여부와도 관련이 있다. <면양정가>는 작자가 곧 은일자이자 면양정의 주인이었기에, 사시와 함께 자신의 삶을 과시하기 위한 면양정 공간의 서경이 필요했다. 하지만 <성산별곡>은 작자가 주인이 아닌 손의 입장이었기에, 자연히 그 관심도 식영정의 공간적 서경보다는 은일자인 주인의 사시생활 묘사에 치중하게 되었다. 물론 누정은일 가사가 이렇게 처음부터 사시에 관한 기술을 기본으로 하여 성립한 것은 사시의 순환으로 상징되는 자연 질서와의 조화를 추구하였던 사대부들의 이념적인 삶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고반원가>는 작자가 곧 은일자이다. 그리고 본사의 구성이 시간과 공간을 병치시킨, 본사 I(일상과 사시)과 본사 II(산수의 가경)로 이루어져 있다. <면양정가>와는 시간과 공간의 배치 순서가 다를 뿐이다. 그런 점에서 <고반원가>는 <성산별곡>보다 <면양정가>에 훨씬 더 가깝다. <면양정가>의 맥을 직접 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sup>16)</sup> 작품의 표현에 있어서도 <고반원가>에는 <면양정가>와 유사한 점이 많다.

①노픈듯 즈듯 근눈듯 닛눈듯

숨거니 뵈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즈러운 가운데 일흠는 양향야  
하늘도 젓치아여 웃독이 셋는거시  
秋月山 머리짓고 龍歸山 鳳旋山  
佛臺山 魚灯山 湧珍山 錦城山이  
虛空의 버러거든

遠近 蒼崖의 머믄것도 화도할샤 (<면양정가>)

②大月峯 小月峯 ㄱ티곰 端正호고

16) 남언기와 정철 사이의 교감을 보여주는 기록은 많으나, 남언기와 송순 사이의 교감을 보여주는 기록은 아직 찾지 못하였다. 하지만 남언기의 김인후와 정철과의 관계로 보아, 그와 송순 사이에도 어느 정도의 접촉이 있었을 것이다.

九峯山 百年巖 고로로도 버러실사  
 天雲聳巖 瓮城馬首 母后無等 蓮花翠屏은  
 엇지흔 일로 구롬우희 소사나서  
 드토아곰 엇보고  
 눈섭그튼 道理되는 어드러로 가다가  
 들가온대 셔인느니 (<고반원가>)

두 작품에서 주변의 산세를 묘사한 부분이다. 원근에 산재한 산들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였다. 심지어 면양정이나 고반원에서 육안으로는 조망하기 어려운 지점의 산까지도 망라하였다는 사실마저 닮아 있다.

<고반원가>는 이렇듯 구성과 표현에 있어서 <면양정가>와 상통하는 점이 많다. 그렇지만 작품의 창작 환경은 상당히 다르다. 특히 창작 당시 작자의 신분이나 처지가 그렇다. 송순은 관료 출신으로, 오랫동안 출사하였다가 한때 관직에서 물러나 면양정에 있으면서 <면양정가>를 지었다. 반면 남언기는 출사 이력이 없는 인물로, 스스로 한양을 떠나 다른 곳에 살 곳을 정해 고반원을 조성하고 <고반원가>를 지었다. <면양정가>는 일시 퇴휴한 관료에 의해, <고반원가>는 출사하지 않은 선비에 의해 창작된 것이다. 이 점에 있어 남은 <성산별곡>은 <면양정가>와 입장을 함께 한다. 마찬가지로 관직에서 잠시 물러나 있던 관료에 의해 창작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면양정가>는 일시 퇴휴한 관료가 자신의 은일을, <성산별곡> 역시 일시 퇴휴한 관료가 타인의 은일을, <고반원가>는 출사하지 않은 선비가 자신의 은일을 각각 노래하였다.

작자의 성격 외에, 작품 속의 현실인식태도에 있어서도 <고반원가>는 <면양정가>와 다른 면모를 보인다. 오히려 <성산별곡>과 가깝다. 은일이란 말 그대로 세상을 피해 숨어사는 것이다. 때문에 은일공간이 곧 은일자의 삶의 무대이다. 도피의 대상은 대개 세상의 부조리한 현실이거나 번잡한 도회의 삶이다. 특히 16세기에는 사회와 당쟁이 끊이지 않았던 불안한 정치현실이 많은 선비들을 은일로 내몰았다. 그래서 은일가사에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는 작자의 인식태도와 아울러, 세상과의 거리감이 표출

되기 마련이다.

① 人間을 썬나와도 내몸이 겨를업다  
니것도 보려히고 저것도 드르려코  
브람도 혀려히고 들도 마츠려코  
븨으란 언제줍고 고기란 언제낙고  
柴扉란 뉘다드며 단곳츠란 뉘쓸려료  
(중략)  
술리 너어거니 벗지라 업슬소냐  
블늑며 특이며 혀이며 이야며  
오가짓 소리로 醉興을 빅야거니  
근심이라 이시며 시름이라 브터시라 (<면양정가>)

② 하늘 삼기실제 空無心 홀가마는  
엇디흔 時運이 일락배락 흐얏는고  
모를일도 하거니와 애들움도 그지업다  
(중략)  
人心이 ㄴ긔트야 보도록 새롭거늘  
世事는 구름이라 머흐도 머흘시고  
엇그제 비즌술이 어도록 니건느니  
잡거니 밀거니 슬크징 거후로니  
ㅁ음의 ㅁ친시름 저그나 흐리느다 (<성산별곡>)

③ 어리고 미친性이 世俗과 어긔거든  
병들고 늘근거시 구퓌여 ㄸ건니라  
漢江ㄱ의 도라셔셔 終南山을 블라보고  
浩然히 느려오니  
故園 松竹은 ㅁ슴쁘들 머거셔  
줏쓰러곰 반기느니  
(중략)  
床우히 싸흔冊은 ㅁㅁ물리 다햏고  
樽中에 다ㅁ술은 세물썰이 나느고나  
구며 읍다가 우러려 싱각히고  
브어 마시다가 淸호여 ㅁ드노라 (<고반원가>)

위의 예시는 각 작품에서 작자의 현실인식태도가 비교적 강하게 드러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우연하게도 모두 술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면양정가>에는 아무런 근심이나 시름이 없이 벗을 맞아 분방하게 취흥을 즐기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인간(人間)’으로 표현된 세상과의 심리적 갈등이나 거리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얼마간의 물리적 거리만 전제되어 있을 뿐이다. ‘인간(人間)’을 떠나와도 역시 ‘겨를’이 없다고 하여, 은일생활이 이전과 다름없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분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암시하였다. 이에 비해 <성산별곡>에서 음주는 마음에 맺힌 시름을 풀기 위한 수단으로 그려진다. ‘시운(時運)’과 ‘세사(世事)’, 즉 현실에 대한 부정적 태도 및 심리적 거리감도 감지된다. 또 <고반원가>에서 술은 책과 함께 한적한 은일생활을 돕는 동반자이다. 어긋난 ‘세속(世俗)’과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도 크다. 특히 ‘병들고 늙은 것’이 ‘어리고 미친 성(性)’ 때문에 세속과 어긋났다고 하는 표현에서는, 다음 시대에 흔히 보이는 은일 동기의 전형화가 비롯된 단초를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송순의 면양정 은일이 이전의 유배생활 등과 관련이 있다 할지라도, 은일가사로서 <면양정가>에는 아직 현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개입되지 않았다. 이전의 <상춘곡>처럼 긍정적 현실인식과 세상과의 물리적 거리감을 바탕으로 성립되었다. 하지만 <면양정가>의 맥을 이으면서 <성산별곡>과 <고반원가>는 긍정적 현실인식을 부정적인 것으로 치환하고, 물리적 거리감을 심리적인 데까지 확장시키는 변화를 가져왔다. 그렇다고 하여 <성산별곡>과 <고반원가>의 세계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현실과의 불화나 갈등에 대한 진단이 다르다. <성산별곡>은 그 원인을 현실에서 찾아 ‘시운(時運)’과 ‘세사(世事)’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반면, <고반원가>는 그것을 현실보다는 ‘어리고 미친’ 자신의 탓으로 귀결시켰다. 정쟁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과, 출사를 하지 않고 정치현실에서 비껴서 있었던 인물의 차이이다. 또 작품 속 작자의 위치에 있어서, <성산별곡>의 작자는 은일의 주체가 아니라 ‘주인’의 은일을 들여다보는 ‘손’의 입장에 머물러 있었다. 작자가 은일자가 되어 자신의 생활을 직접 보

여준 <고반원가>와는 다르다. 때문에 작품의 구성상 <성산별곡>은 <면양정가>의 사시만을 취해 주인의 생활을 그리는 데 치중하였고, <고반원가>는 <면양정가>처럼 사시를 아우르면서도 작자 자신의 고반원 공간에 대한 서경을 보다 비중 있게 안배하였다.

한편 조선의 16세기가 사회와 당쟁으로 대변되는 불안한 정치현실을 배경으로 하였다면, 17세기에는 임병양란과 인조반정 등 잦은 전란과 정변으로 인한 피폐한 민생현실이 더 큰 문제로 떠올랐다. 이런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17세기 가사문학<sup>17)</sup>에도 전쟁이나 교훈, 역사, 사행, 유배 등을 내용으로 한 작품들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가장 많은 것은 역시 은일가사였다.<sup>18)</sup>

17세기의 누정은일가사 작자와 작품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작품의 창작 시기와 연고지이다.

- 김득연(1555~1637) : 지수정가(1615경, 경북 안동)
- 박인로(1561~1642) : 소유정가(1617, 대구)
- 채득기(1605~1646) : 천대별곡(1638, 경북 상주 무우정)
- 신계영(1577~1669) : 월선현십육경가(1655, 충남 예산)
- 신 교(1641~1703) : 백석정별곡(1677경, 충북 청원)  
광주임경정팔경(1698경, 경기 광주)

작자에 있어서 김득연과 채득기는 출사하지 않은 향촌의 선비이고, 나머지 박인로·신계영·신교는 관료 출신이다. 그런데 채득기는 처사적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공무를 수행하였던 특이한 이력이 있으며,<sup>19)</sup> 신교의 두

17) 앞의 주8)에서 언급한 것처럼 류연석은 임진왜란(1592) 이후부터 경종조(1724)까지의 약 130년간을 가사의 흥성기라 하였는데, 이 시기가 대개 17세기이다. 류연석은 흥성기의 유명씨 작품을 38명 작가의 63편으로 집계하였다.

18) 이상보는 17세기(1600~1699)의 가사 45편을 주제별로 분류하며, 29편을 은일가사에 포함시켰다.(이상보, 『증보 17세기 가사 전집』, 민속원, 2001, 58쪽.)

19) 채득기는 병자호란(1636)이 일어나자 경북 상주에 무우정을 짓고 은일하였으며, 1638년 왕명에 따라 백의로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인평대군의 호종을 위해 심양으로 떠나면서 자신의 은일생활을 돌아보며 <천대별곡>을 지었다. 때문에 <천대별



작품 중 <백석정별곡>은 출사 전에, <광주임경정팔경>은 처사 후에 창작되었다. 또 작자와 은일자의 관계에 있어서, 나머지 작품들과 달리 <소유정가>는 <성산별곡>처럼 작자와 은일자가 서로 다르다. 은일자인 작품 속 화자는 작자인 박인로가 아니라, 당시 소유정의 주인이었던 채선길(1569~1646)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지수정가>·<천대별곡>·<백석정별곡>에서는 향촌 선비가 자신의 삶을, <소유정가>에서는 퇴휴한 관료가 다른 향촌 선비의 삶을, <월선헌십육경가>와 <광주임경정팔경>에서는 만년 처사한 관료가 자신의 삶을 노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세 유형이 차례로 앞에서 말한 <고반원가>, <성산별곡>, <면앙정가>의 경우에 해당된다.<sup>20)</sup>

내용 구성에 있어서는 <지수정가>·<소유정가>·<천대별곡>·<백석정별곡>·<광주임경정팔경>이 모두 <고반원가>처럼 본사에 공간과 시간을 병치시켜 서경과 사시를 아우르는 방식을 취했다. 다만 <소유정가>는 사시 중에서도 봄과 가을의 흥취를, <천대별곡>은 가을과 겨울의 경물을, <백석정별곡>은 봄의 흥취만을 취해 강조하였다는 점이 다르다. 17세기에 와서 사시 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계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기술하는 양식적 변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월선헌십육경가>는 본사를 사시의 틀로만 구성하여 <성산별곡>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여기서 누정은일가사의 내용 구성상 두 유형을 ‘서경사시기술형’과 ‘사시기술형’이라 지칭한다면, 두 유형의 작품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곡>은 은일 동기부터 다른 작품들과 달리 ‘魯連의 憤을 계워 塵世를 아조 쓴코’라 하여 청에 대한 분노를 내세운 특이한 작품이다.

- 20) 이 세 유형의 작품 양상을 남동걸은 ‘처사의 은거구지적(隱居求志的) 삶과 상자연(賞自然)’, ‘처사의 물외한인적(物外閑人的) 삶과 자연 몰입’, ‘처사객의 소일(消日)과 자연 애호’로 파악하여 살핀 바 있다.(남동걸, 「조선시대 누정가사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43~105쪽.)



양에서 호남으로의 낙향이라는 처소의 변화가 은일의 동기를 분명히 해주었다. 이에 비해 17세기 작가들의 경우에는 막상 은일을 표방하였지만, 실제로는 그 동기가 분명하지 않았다. 이들이 출사 이력이 없는 향촌의 선비였거나,<sup>22)</sup> 자의적으로 만년에 치사한 관료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품 속에 언급된 은일 동기도 ‘늙어서야 한가하여(<지수정가>), ‘어리고 졸(拙)하여서(<소유정가>), ‘종로(終老)를 기약하여(<월선헌십육경가>), ‘늙어가니 일이 없어(<백석정별곡>), ‘산수를 사랑하여(<광주임경정팔경>’ 등으로 막연히 한가한 삶을 지향하는 관습화된 표현으로 기울게 되었다. ‘어리고 미친 성(性)이 세속(世俗)과 어긋나 병들고 늙어서 고원(故園)에 내려왔다’는 <고반원가>의 그것과 동류의 것이면서도, 해명된 의미는 훨씬 약화되어 있다. 세상과의 거리감도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누정은일가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은일보다는 향촌을 배경으로 한 한거의 노래로 성격이 변해갔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누정은일가사는 16세기에 비롯되어 17세기를 거쳐 18세기까지 지속되었다. 여기서 다시 강조되는 것이 누정은일가사가 16세기에 무등산 권에서 비롯되어 여러 유형이 모두 성립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배후에는 당시 무등산권에 발전하였던 누정문화가 있었다. 특히 남언기의 고반원을 배경으로 한 <고반원가>는 몇 안 되는 16세기 작품 가운데 하나로서, <면양정가>의 맥을 바로 잇는 한편, 향후 누정은일가사가 향촌의 한거노래로 전이되어가는 변화의 단초를 미리 보여주었다는 데에 각별한 의미가 있다.

22) 여기서 벼슬길이 막힌 사대부가 농촌에서 살아가면서 지체를 유지하기 위해, 산림치사로 자처하며 은일가사를 지어 이미 공인된 규범을 되풀이하였다는 지적(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제3권, 지식산업사, 1984, 316쪽)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 5. 맺음말

남언기의 <고반원가>는 16세기 후반에 호남 무등산권의 원림 고반원을 배경으로 창작된 누정은일가사이다. 그런데 16세기는 가사문학사에서 흔히 발전기라 일컬어지는 시기로서, 사대부들의 은일가사 창작이 이 시기를 대표하는 작품 경향이였다. 이는 15세기 후반의 <상춘곡>과 <매창월가>의 흐름을 이은 것으로, 16세기에는 특히 누정을 중심으로 한 누정은일가사의 등장이 특기할만한 일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거론할 수 있는 작품이 송순의 <면양정가>와 정철의 <성산별곡> 단 두 편에 불과하여 영성함을 면할 수 없었다.

그러던 차 이번에 새로 발견된 남언기의 <고반원가>는 누정은일가사이면서, <면양정가>·<성산별곡>과 함께 시대는 물론 지역적 배경까지도 공유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하였다. 작품의 외적 환경뿐만 아니라 내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 세 작품 사이에 서로 대비되는 점이 많기 때문이었다. 이를테면 작자와 작중 은일자의 관계, 작품의 내용 구성, 작자의 성격 및 현실인식태도가 그렇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런 성격들이 세 작품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주로 검토하였고, 아울러 17세기 이후 전개된 누정은일가사의 모습을 16세기와 관계 속에서 고찰하였다. 또 그 과정에서 누정은일가사의 몇 가지 유형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고반원가>는 작자와 은일자가 일치하면서 내용 구성상 서경사시기술형에 속하는 작품으로, 이런 유형성뿐만 아니라 표현에 있어서도 <면양정가>의 맥을 그대로 잇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현실인식태도에 있어서는 <면양정가>와 입장을 달리하여, <성산별곡>과 함께 긍정적인 현실인식을 부정적인 것으로 치환하는 변화를 가져왔다. 또 퇴휴 관료가 아닌 벼슬하지 않은 향촌 선비의 입장에서, 현실과의 불화나 갈등의 원인을 현실이 아닌 ‘어리고 미친’ 자신의 탓으로 귀결시킴으로써, 다음 시대의 은일가사에서 보편적으로 보이는 관습의 한 전형을 보여주기도 하

였다. 한편 누정은일가사는 17세기를 지나면서 본질적인 성격의 변화를 겪게 된다. 은일의 동기가 약한 향촌 선비와 만년 치사객의 참여가 늘면서 은일보다는 향촌의 한겨노래로 점차 그 성격이 바뀌어져 갔기 때문이다. 따라서 16세기적 상황에서 형성된 은일이라는 시대감성도 점차 그 성격이 퇴색되어 갔다. 이런 흐름 속에서 <고반원가>는 또한 17세기적 변화의 단초를 미리 보여준 작품이었다.

(이 논문의 초고는 2015년 7월 10일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지역어기반문화가치창출인재양성사업단의 제3회 국제학술대회에서 구술 발표된 바 있다.)

## 참고문헌

남언기, 『고반선생유편』

정 철, 『송강가사(성주본)』

김성기, 『면양송순시문학연구』, 국학자료원, 1998.

김신중, 「문답체 문학의 성격과 <성산별곡>」, 『고시가연구』 제8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1, 64~72쪽.

\_\_\_\_\_, 「남언기의 고반원과 <고반원가>」, 『한국언어문학』 제92집, 한국언어문학회, 2015, 87·94·99쪽.

\_\_\_\_\_, 「신자료 소개, 남언기의 가사 <고반원가>」, 『오늘의 가사문학』 제5호, 고요아침, 2015.

- 남동걸, 「조선시대 누정가사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43~105쪽.
- 류연석, 『한국가사문학사』, 국학자료원, 1994, 77쪽.
- 박영주, 『고집불통 송강평전』, 고요아침, 2003, 348~350쪽.
- 박준규, 『호남시단의 연구』,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8.
- 이상보, 「18세기 가사의 연구」, 『조선시대 시·가의 연구』, 이회문화사, 1993.
- \_\_\_\_\_, 『증보 17세기 가사 전집』, 민속원, 2001, 58쪽.
- 이상원, 「송순의 면양정 구축과 <면양정가> 창작 시기」, 『한국고시가문화연구』 제35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5, 273쪽.
- 임기중 편, 『역대가사문학전집』, 제37권, 이세아문화사, 1998.
- \_\_\_\_\_, 편저, 『한국가사문학주해연구』, 아세아문화사, 2005.
- 정익섭, 『개고 호남가단연구』, (주)민문고, 1989.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제2권, 지식산업사, 1983.
- \_\_\_\_\_, 『한국문학통사』 제3권, 지식산업사, 1984, 316쪽.
- 조태성, 「면과 양, 두 개의 시선 -<명양정가>의 감성적 독해」, 『고시가 연구』 제29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2.
- 최한선, 「성산별곡과 송강 정철」, 『고시가연구』 제5집, 한국고시가문학 회, 1998, 680~704쪽.

<Abstract>

## Literary Historical Review of Nam Eon-gi's <Gobanwonga>

Kim, Shin-chung

<Gobanwonga> is Nujeong-eunilgasa, which was recently discovered. It was created based on the background of Gobanwon of Sapyeongchon which belonged to Mt. Mudeungsan of Honam in the 16th century. Based on this <Gobanwonga> as the target, this research reviewed the position of it in Gasa literature. Major content of discussion is as follows.

This research firstly viewed the basic points of the writer and the work briefly by considering <Gobanwonga> has recently been opened to the world, firstly. The writer Nam Eon-gi was from Hanyang, who was closely related to Honam in the process of growth and studying. Also, he established <Gobanwon> by settling down in Sapyeongchon after his mid 30s, where his wife's parents lived, then created <Gobanwonga>. <Gobanwonga> is Nujeong-eunilgasa which narrated leisurely life of the owner of Gobanwon and beauty of Gobanwon landscape.

Therefore, this research paid attention to the characteristic of <Gobanwonga>, above all, as Nujeong-eunilgasa. Particularly, mainly explained the relation between Song Sun's <Myeongjeongga> and Jeong Cheol's <Seongsanbyeolgok>, which had the same background, by giving attention to the period and regional background of Mt. Mudeungsan of Honam in the 16th century. Also, this research considered mainly with the relation between the writer and Eunilja in the

work, composition of work content, characteristic of the writer and attitude to present realization. In the process, this research revealed that <Gobanwonga> had identity on its own way, while it continued particularly the context of <Myeonangjeongga>.

Also,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relation between Nujeong-eunilgasa and <Gobanwonga> since the 17th century. Nujeong-eunilgasa of the 17th century also was created on the basis of the tradition established in the 16th century. However, since the 17th century, character of Nujeong-eunilgasa was transformed to a song of leisurely life in the country rather than Eunil, there was almost no work creation thereof in the 18th century. That was the result that the period sensitivity, Eunil, conceived in the easeless political reality of the 16th century did not gain the sympathy any more. In this stream, <Gobanwonga> was a work that showed a clue for the change in 17th century in advance.

**Key words** : Nam Eon-gi, <Gobanwonga>, Nujeong-eunilgasa, <Myeonangjeongga>, <Seongsanbyeolgok>, the 16th century, period sensitivity

투고일 : 2015년 7월 15일, 심사 : 7월 17일 ~ 8월 13일, 게재확정 : 8월 13일
---